

# 학습공동체 교원동아리 운영실태 주목

### 도내 총 1006개 활동 “전문성·정보교환 도움” 독서·토론이 가장 많아

전북도내 교원 동아리는 총 1,006개에 1만1,05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문성 신장과 정보 교환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용석) 교원동아리 연구팀이 '전북교육청의 교원동아리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이번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교

육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학습공동체인 교원동아리 운영 실태에 주목한 것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전북 교원동아리는 모두 1,006개에 11,05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을 폐는 기관으로 도교육청이 782개로 전체 77.7%를 차지했고 교육지원청 188개(18.7%), 직속기관 36개(3.6%) 순으로 분석됐다. 지원예산도 도교육청이 13억 원(85.2%)을 차지했고 교육지원청 1억 5천만 원(9.8%), 직속기관 8천만 원(5.0%)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분야별 교원동아리를 보면 ▲교과 및 법규과 200개 ▲수업탐구 151개 ▲독서교육 80개 ▲

토론편역 수업동아리 40개 등 총 782개 8,438명이다. 이들 연구팀은 유·초·중·고 교원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응답자는 1,109명이다. 모임 주기를 묻는 결과, 월1회가 57.9%(643명)로 가장 많았다. 격주 15.5%(172명), 분기별 1회 13.2%(147명)로 나왔다. 동아리회원 구성 범위는 단일학교(40.7%), 시군단위(32.4%), 도단위(25%), 기타(1.7%)로 나타났다. 또 주요 활동형식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독서)토론 65.2%·워크숍, 세미나 61.3% ▲친목활동 33.09% ▲강사초청 연수 28.8%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동아리활동 도움요소에 대한 질문

에는 ▲전문성 신장 44.4%(487명) ▲동료간 정보교환 30.1%(330명) ▲수업 개선 22.2%(243명) ▲친목 도모 3.4%(37명) 순으로 나왔다. 교원동아리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4.15점(5점만점)으로 나타났다. 예산사용의 편리(4.07점), 참여영역 다양(4.06점), 결과보고 용이(3.99점), 예산 적절(3.86)로 나타났다. 교원동아리 연구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이 정책 중심으로 동아리를 지원하고, 각 주제에 따른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는 교원동아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근 기자



# 청소 근로자 정규직화 모범사례 칭송하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  
전북대 방문 사례 칭취

전북대학교가 올 초 추진한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전국 대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교육일자리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24일 전북대를 방문, 이남호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과 최근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청취했다. 특히 박 차관은 1월 1일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용역 근로자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소회 등을 듣고, 더 나은 방향의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이날 전북대 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역 국립대학 사무국장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학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 내 고용 안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차관은 "전북대의 이번 청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우수사례"라며 "이러한 모범사례가 전국 대학에도 전파되고, 근로자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오다가 국립대 최초로 118명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교육일자리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24일 전북대를 방문, 이남호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과 최근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 전북대생 新한류 세계로 전파

28일·2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페스티벌 개최

매년 학생들 손으로 만든 축제인 한류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건)이 이번에는 대만을 찾아 신한류 페스티벌을 연다. 사업단은 28일과 2월 3일 양일에 걸쳐 대만 타이베이에서 'Follow, Korea'를 주제로 한 신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페스티벌 전문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전북대 8개 학과(문헌정보학과, 사학과, 프랑스·아프리카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국음악학과) 총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기획, 개발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인다. 2015년부터 3년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등 10개 국가에서 개최해 호평을 받아 온 신한류 페스티벌은 이번 대만 축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한류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의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타이베이 시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아래 2회에 걸쳐 개최된다. 28일 신의광장(信義香堤廣場)에서 열리는 첫 번째 페스티벌은 국립대만사범대학교, 타이베

이시립유공국민중등학교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2월 3일에 열리는 두 번째 페스티벌은 대만의 초대 총통이자 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를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의 지역'을 주제로 한국 도시의 매력과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된다.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서울과 용인, 평창, 천안, 고흥, 부산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복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지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음악과 K-POP을 접목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선보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와 더불어 평창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한류문화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CK-1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과 김건 단장은 "지난 수개월간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전략 찾는다

26일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국립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김동익 단장)이 오는 26일, 군산대 산학협력관에서 비영리법인 지역경제교류회와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경제교류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해 자유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익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군산시의 미래전략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

해 산학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산학협력은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기업들의 가동 중단과 위기설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차원의 맞춤형 산학협력 시스템의 고도화가 절실하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교류회 흥순경 회장(한국지역 대외협력단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실천하자"고 말했다. /군산=김관문 기자

# 진안교육지원청, 올해 교육계획 설명회 열어

전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신애)에서는 24일 오후 2시에, 관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과 진안 교육에 관련 있는 기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교육계획설명회'를 개최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170여명의 진안교육가족들이 함께 모여, 2018년에 진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행복을 약속해 줄 진안교육계획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를 위해 미리 진행되었던 '드림 에듀 원탁토론회'와 '진안교육가족 생각 나누기'를 통해 모아진 교육가

족들의 의견과 생각들이 충실히 반영된 2018 진안교육계획 설명회 들으며, 지역과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동행하는 2018 진안교육이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김신애 진안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놓여온 교육특구와 더불어 다꿈교육특구도 함께 운영될 2018 진안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함께 가는 진안교육을 실천하고, 21세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로

복합는 교육

2018년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